

UAE 인프라 확장 현황 및 계획

두바이사무소
2014. 11. 16.

1 아부다비 인프라 현황 및 계획

- 아부다비 비전 203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아부다비 인구가 지속증가(2008년 90만명에서 2030년 310만명)하여 이를 수용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이 국가 주요 과제임
 - 관광객은 180만명에서 790만명으로 증가하고, 1일 유동 인구는 120만명에서 54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최근 아부다비 토후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등으로 인프라 프로젝트가 확장되고 있음
 - 향후에도 아부다비는 경기회복 안정세와 더불어 사회복지 시스템 및 도시 인프라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

아부다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내역

(아랍에미리트 디르함)	
프로젝트명	예산 규모
주택대출 기금	31억(U\$8.5억불)
Al Ain 종합병원 건설	43억(U\$11.7억불)
A1 Mafraq-Al Ghuwaifat 고속도로 건설	53억(U\$14.5억불)
New Abu Dhabi-Dubai 고속도로	21억(U\$5.7억불)
송전로 건설	8억1,000만(U\$2.2억불)
Al Ruwais 하수처리플랜트 건설	1억3,000만(U\$0.3억불)

2 두바이 인프라 현황 및 계획

- 두바이는 인구증가와 교통정체 심화 및 다가오는 엑스포에 대한 사전 준비로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
 - 최근 경기 활성화 및 엑스포 2020 유치 성공으로 인해 대형 부동산 개발기업들은 앞다투어 주거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엑스포 개최지역인 제벨알리 지역개발도 신공항건설 등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있음
 - 이와 더불어 기존 인프라 개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두바이 도로 교통청(Roads and Transport Authority, RTA) 발주 프로젝트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의 관심이 요망됨
- 2014년 RTA 예산은 AED 70억 디람(US\$ 19억 달러) 이상이며, 이 중 건설 프로젝트에 AED 36억 디람(US\$ 약 10억 달러)을 할당
 - 두바이는 최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빠르게 경제가 회복하고 있어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도로 곳곳의 정체가 심화되고 있음
 - 또한 엑스포 유치와 더불어 두바이 시내로부터 제벨알리 항만 근처이자 엑스포 개최 예정 장소인 두바이 월드 센트럴(Dubai World Central, DWC) 지역과의 연결성 증대 및 DWC내 알막툼 국제공항의 활성화가 필요
 - 이에 인구증가, 도로정체, 엑스포를 비롯하여 물류량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, 개선 및 확장 프로젝트 추진 예정

- 향후 예정된 프로젝트에는 도로, 교량, 메트로, 수로건설 등이 있음
 - 도로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작고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주로 현지 업체가 포진하여 수주하고 있으며 RTA도 현지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대부분 현지 업체에게 발주
 - 교량, 메트로, 수로건설 등은 엔지니어링부터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업과 현지 기업의 컨소시엄 형태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
 -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가 프로젝트의 수주 및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